



# 방치견 예방과 주민 상생 복지를 위한 토론회

2023. 5. 10.(수)

주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파주 애니멀메이트  
PAJU CITY COUNCIL

주관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파주 애니멀메이트 동물권행동 **카라**  
PAJU CITY COUNCIL

# 방치견 예방과 주민 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

## 목차

### 환영사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3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4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	5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6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	7

### 주제발표

발제자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11
-----------------------	----

### 패널토론

좌 장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토론 01 김혜미   파주시 명예동물보호관	37
토론 02 김구성   파주시 법원읍 금곡1리 이장	41
토론 03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	43
토론 04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7
토론 05 유화욱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병원 원장	53
토론 06 김종래   파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장	57



방치건 예방과 주민 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

# 환영사

---





**파주시의원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이혜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방치견 예방과 주민 상생 복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매년 약 700여 마리의 개가 유실·유기되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농촌 지역의 방치견과 마당개들의 번식으로 태어난 중대형 믹스견의 자견으로 추정되며, 또한 보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신 만큼 그동안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처방전(處方箋)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방치견 예방과 주민 상생 복지를 위하여 농촌 지역 반려동물 돌봄 인식 개선 교육 및 중성화 지원 등에 대한 입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파주애니멀메이트”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예산 및 입법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여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도시 파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파주시의원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애니멀 메이트 연구단체 소속 오창식 의원입니다.

2023년 현재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안락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292마리의 유기견이 파주시 위탁 보호소에 입소하여 절반 이상인 149마리가 안락사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복지에 관심을 뒤야 하는 상황에서 파주시는 유기견을 포획하고 위탁 보호소에 일정 기간 안락사로 유기견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파주시 유기견을 구조하는 민간단체 지원, 농촌 지역의 동물등록제 지원, 방치견에 의한 물림사고에 대한 치료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주 애니멀 메이트 연구단체는 지난 1월에 유기동물 보호 선진시설인 강원도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유실·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노하우와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등 선진 동물보호정책을 습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치견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마련의 장이기를 바라며, 파주시 내 방치견 문제와 심각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의원  
최창호**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애니멀메이트의 일원으로 함께 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 시골에서 살아 마당에는 항상 누렁이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항상 개와 뛰어놀고 강아지를 출산하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똑똑한 녀석은 병아리를 물어가던 족제비를 물리치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함께 뛰어놀던 누렁이가 반려견이라는 인식은 없었지만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고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주의부족으로 유기견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들개가 되고 포획되어 안락사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인간의 부주의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개선책을 찾아보고 사람과 함께 동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연구단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연구단체 애니멀메이트 이혜정 대표의원님과 함께 동물사랑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의원**  
**손성익**



안녕하세요,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입니다.

방치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방치견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는 물론, 인간과 반려동물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방치견 예방과 주민 상생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치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방치견 문제를 논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각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가 지역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의원  
이정은**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애니멀 메이트 연구단체 소속 이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방치견예방과 주민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 부처 공직자 및 파주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일상화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혜정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파주시의회 연구단체인 파주 애니멀메이트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반려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앞장서며,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동물보호 단체 및 관련 집행부서와 함께 노력하여 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설의 확충,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다 나은 동물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에 대한 첫 시작으로 방치견 예방 및 주민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우리 파주시 지역사회 내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좋은 의견을 함께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치건 예방과 주민 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

## 주제발표

---





# 발 제 요약

전진경 대표 | 동물권행동 카라

## I

동물권행동 카라는 파주 법원읍에 소재한 더봄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다른 농촌 지역의 특수성에 주목하며 마을의 동물복지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주민들과 소통 속에 시골개와 시골고양이를 위한 마을 동물복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1년이 막 지난 2023년 4월 현재 카라는 법원읍을 대상으로 38마리 개와 150마리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중심의 의료적 지원과 구호활동을 펼쳤는데 개에 대한 지원 내용은 완전구조(카라 입소+치료+중성화+입양) 17마리, 중성화 지원 11마리, 중성화와 치료 지원 4마리, 기타 치료 지원 4마리, 기타 입양 지원 2마리 등이다. 이는 사건별로는 14개 현장이었고 이 가운데 12개 현장은 보호자 등 당사자가 존재했고 2개 현장은 보호자 등 당사자가 없었다. 당사자가 있던 12개 현장의 경우 70~80대 노인 4건, 50~60대 남자 4건, 50~60대 여자 4건으로 동물 분포상으로 볼 때 70~80대 노인 15마리(39.5%), 50~60대 남자 7마리(18.4%), 50~60대 여자 14마리(36.8%), 당사자 없음 2마리(5.3%)로 70~80대 노인이나 50~60대 여자가 당사자일 때 지원 동물 마리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8마리 개체별 보호자 유무 기준으로는 26마리(68.4%)가 보호자가 있는 개였고 12마리(31.6%)는 보호자가 없는 개였다. 38마리 전원 실외 사육이었고 이중 14마리(36.8%)가 3개월령 미만이었으며, 38마리 가운데 19마리(50%)가 떠돌이 개이거나 떠돌이 개로 인한 새끼였다. 38마리 가운데 34마리(89.5%)가 믹스였고 특히 20마리(52.6%)는 진도 믹스였다.

정부에서 연간 실시하는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양육자의 92.4%가 실내 사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95.3%, 농어촌 지역 70.5%가 실내 사육이었지만, 카라의 파주 마을 동물복지 사업 지원 현장은 100% 실외 사육이었다. 한편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견 중성화 수술 여부에 대하여 74.1%가 중성화를 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73.5%가 중성화, 농어촌지역 63.4%가 중성화 했다고 하였으나, 카라의 파주 마을 동물복지 사업 지원 현장 38마리 가운데 기중성화 된 사례는 단 1마리(2.6%)뿐이었고 동물을 방치 사육하면서도 새끼를 또 봐야한다는 보호자의 반대로 2마리(5.2%)는 치료 지원으로 내원했으면서도 중성화 수술은 끝내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농촌 지역 동물보호 실상은 정부의 조사 결과와는 괴리가 큰데 이는 정부가 조사 대상을 만 20세에서 만 64세까지 성인 남녀로 제한해 농촌 지역, 특히 노인의 높은 반려동물 양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를 반려하는 반려가구의 비율은 농촌 지역에서도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보호자의 연령층은 매우 높은 편이다. 마당개가 집집마다 있고 적게는 1마리에서 많게는 15마리까지 개를 기르는 가구가 관찰된다. 사육환경은 뜰장 사육에서부터 철장 사육, 축사 등 구조물의 한켠에서 사육, 울타리 바닥 사육, 실내 사육까지 다양하고 밭 지킴이나 파수꾼 용도로 아예 집밖에서 사육되기도 한다. 목줄의 길이는 1m 짧은 목줄에서부터 이동 반경이 넓은 와이어줄, 목줄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먹이로는 개 사료를 주지만 잔반도 많이 급여되며 여전히 사람이 먹다 남긴 잔반만 먹이는 곳도 있다. 급여를 위해 일부러 음식점에서 잔반을 얻어오는 경우도 있다. 개집은 기성품이 많지만 간혹 목재 제작물이 눈에 띄기도 하며 덩그러니 놓인 개집 자체가 비가림 용도로 쓰임이 병행되지만 크기 등이 안맞아 무용지물인 곳도 있다.

보호자와 출산책하는 개의 모습도 더러 보이지만 대개는 도로에서도 줄없이 산책하고, 심지어 개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 생전 산책을 못하는 개가 있는 반면, 울타리 없이 풀려져 있다 마당 너머로 나가는 것을 반복, 보호자 관리 반경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개도 있다. 암수 구분을 떠나 반려가구의 중성화 보급률 자체가 매우 낮은데, 중성화에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 존재하고 암컷만 중성화 하면 된다고 인지되기도 한다. 가구 내에서 여러 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수컷 일부만

중성화 되어 있기도 하고 중성화 없이 분리 구획으로 만 버티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시골개가 사는 환경은 대체로 좁고 동물복지 개념의 적용은 더디며 중성화 비율 또한 낮다.

한편 마당에서 기르는 미중성화 반려견에게 떠돌이 개가 접근하기도 하고 중성화 안 된 반려견이 밖에서 목줄 없이 다니다 다른 개들을 만나기도 한다. 2014년 이래 의무제인 동물등록도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집 나간 개, 키우다 버려진 개, 처음부터 보호자 없이 떠돌던 개, 혼자 산책중인 개, 그리고 마당개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예기치 않은 새끼들이 태어나고 방치되고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극히 일부의 강아지들이 구조되어 지인 입양 등의 살 길을 찾기도 하지만 구조 후 시보호소로 들어가 안락사 되는 강아지들은 훨씬 더 많다. 최초부터 보호자가 없는 동물이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방치되는 동물이 한 데 뒤섞여 마을 방치견 문제가 악화되는 속에서 개들은 로드킬, 울무, 쥐약 등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이 산과 들, 인가를 떠도는 개들은 소위 '들개'로 낙인 찍힌다.

## II

소위 '들개'는 유기견에 준하여 행정 처리되고 있다. 포획 자체도 어렵지만 포획되면 시보호소로 들어가 형식적인 공고기간을 갖고 10일만에 안락사 수순을 밟는다. 파주시보호소는 직영이 아니고 위탁 시보호소 또한 현재 관내에 없어 양주 동구협으로 보내고 있다.

파주에서는 2023년 들어서만 252건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는데 241마리가 개이다.

이 가운데 127마리(52.7%)가 안락사, 15마리(6.2%)가 자연사 함으로써 입소견 58.9%가 사망으로 귀결됐다. 안락사 된 개들은 어린 자견이 대부분으로 2023년생(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이 88마리(69.3%), 2022년생(3개월 이상~1년 전후)이 25마리(19.7%)로 안락사 사망견 89%가 매우 어린 강아지이거나 나이가 많아도 1세 전후인 개들이다.



파주 시보호소 입소 동물 기준, 파주에서는 2019년도 815마리(개 750), 2020년도 766마리(개 689), 2021년도 777마리(개 712), 2022년도 662마리(개 573), 2023년도 현재 252마리(개 241)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발생 유기동물 마리수 대비 안락사 비율은 2019년도 51마리(6.3%), 2020년도 96마리(12.5%), 2021년도 160마리(20.6%), 2022년도 131마리(19.8%)였다.

2023년도는 4월 현재 안락사 된 동물이 이미 129마리(51.2%)로 마리수로 보나 비율로 보나 그 수가 급격히 치솟고 있는데다 대부분 매우 어린 연령의 동물들인 것이다.

### III

동물 방치 사육과 반려견 미중성화 등이 방치견과 소위 '들개'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신고나 제보로 유기동물 시스템 속에 포섭된 동물들은 무섭게 안락사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동물복지가 더딘 만큼 변화의 여지 또한 크다.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과 중성화 보급으로 방치견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마을의 환경은 활용하기에 따라 도시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동물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다. 소위 '들개' 또한 방치견이 줄어들 경우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농촌 지역 환경에서 '야생화'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다.

소위 '들개'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책을 모색해온 카라는 '야생화' 된 유기견에 대한 포획-살처분 정책이 윤리적이지 못할 뿐만아니라 문제 해소에 있어서도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해 왔다. 카라는 2021년 서울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소위 '들개'에 대한 포획 구조 및 사회화 활동을 통해 성견의 경우 포획이 굉장히 어려우며 포획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4개월령을 초과한 개체의 경우 사회화 훈련 과정에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2년 이상의 훈련에도 사회성 훈련이 안되는 개체 또한 존재하는 현실을 짚었다. 생후 16주까지의 경험이 개의 일생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소위 '들개' 포획과 사회화로 입양을 선순환 시키는 활동은 4개월령 미만 개체에 적합하고 4개월령 이상의 소위 '들개'는 포획-살처분보다 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정책에 대한 시범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소위 '들개'는 포획-살처분 방침에 대한 비인도적 문제 외에도 포획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마취총 사용 여부, 포획업자의 비인도적 핸들링, 포획시 불법업구의 동원 등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마포구에서 마취총을 맞고 사망한 '상암이' 사건은 마취총 사용의 위험성과 함께 소위 '들개'로 간주되어 강압적 포획이 시도된 상암이가 실제로는 마음을 열고 따르던 주민이 있을 정도로 '야생화'가 많이 진행된 개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너무 많은 방치견들로 방치견과 소위 '들개' 문제가 뒤섞여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인식 개선과 공격적인 중성화로 방치견을 줄여나가는 것을 우선 전제로 설사 '야생화'가 많이 진행된 소위 '들개' 개체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포획-살처분을 대신할 살림의 정책적 시범 사업을 도모해봄직하다.

방치견과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 반려가구 보호자의 특징을 고려, 취약계층 등으로 포섭하여 사람에 대한 뒤떨어진 복지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반려동물 돌봄 교육과 중성화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2022년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이 도입되어 파주에서도 2022년 60마리, 2023년 150마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안전한 시술로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자견에 대한 시보호소 안락사가 횡행하는 비극적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민관이 합심하여 방치견 양산의 원인부터 막아야 한다.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상생복지를 위한 대안 찾기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2023.05.10.)



### 목차

1. 시골개 실태
2.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3.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소위 ‘들개’
4. 방치견 예방과 상생복지를 위한 대안



# 1 | 시골개 실태



## 카라의 마을 동물복지 사업

- 파주 법원읍에 소재한 더봄센터 인근 반려동물 복지 증진 캠페인으로 시작.
- 시골 개와 시골 고양이 중심으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지원.
- 파주, 평창 등 현재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진행중이며 농어촌 지역 대상.



# 1 | 시골개 실태



## 카라의 마을 동물복지 사업

(파주 지역 지원 현황)

- 기간: 2022년 4월~현재
- 마리수: 개 38마리, 고양이 150마리
- 내용: 중성화 중심의 의료적 지원과 구호 활동



〈개 38마리 지원 내용 구분〉

완전 구조 (카라 입소+치료 +중성화+입양)	중성화와 치료 지원 (중성화+치료)	중성화 지원 (중성화)	치료 지원 (건강검진+치료)	입양 지원 (건강검진)	합계
17마리	4마리	11마리	4마리	2마리	총 38마리
*내원시 기본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충 포함					



	이름	연령	성별	내용	품종	환경	보호자	비고
1	몽치	성견	♂	중성화 지원	믹스	실외	○ (노인)	환경 개선, 입양 지원
2	하롱	성견		중성화 지원, 사상충 치료	진도믹스	실외	○ (아저씨)	마당개와 떠돌개 사이에서 출산
	빛나	강아지		안구이상, 구 조	진도믹스	실외	○ (아저씨)	마당개와 떠돌개간 새끼, 장애 견
3	덕구	성견		검진 지원, 사상충 치료	진도믹스	실외	○ (아저씨)	중성화 반대, 방치견
	은혜	성견		검진 지원, 중증 진드기	진도믹스	실외	○ (아저씨)	중성화 반대, 방치견
	풍이	성견		검진 지원, 중성화 지원, 중증 진드기	진도믹스	실외	○ (아저씨)	중성화 반대 치료 설득, 방치견
4	공주	성견		검진, 치료, 중성화 지원	품종	실외	○(아주머니)	
	장군	성견		검진, 치료	품종	실외	○(아주머니)	기중성화
	코비	성견		검진, 치료, 중성화 지원	믹스	실외	○(아주머니)	
5	샌드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 (노인)	
	수지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 (노인)	
	파이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 (노인)	
	실론	성견	♂	구조	진도믹스	실외	○ (노인)	떠돌개, 방치견
6	응얼	강아지		구조	믹스	실외		떠돌개의 새끼, 다리 기형
	공얼	강아지		구조	믹스	실외		떠돌개의 새끼
	곰이	강아지		입양 지원	믹스	실외		떠돌개의 새끼, 입양 지원
	장군	강아지		입양 지원	믹스	실외		떠돌개의 새끼, 입양 지원
	이쁜이	성견		중성화 지원	믹스	실외	○(아주머니)	떠돌개, 입양 지원
	연탄	성견		중성화 지원	믹스	실외	○(아주머니)	
	두부	성견		중성화 지원	믹스	실외	○(아주머니)	

7	콩투	성견		중성화 지원	믹스	실외	o(아주머니)	
	바리	성견		중성화 지원	믹스	실외	o(아주머니)	
	뽕이	성견		중성화 지원	진도믹스	실외	o(아주머니)	
8	금동	성견		중성화 지원	믹스	실외	o (아저씨)	
9	룩키	성견		중성화 지원	품종	실외	o (아저씨)	
10	알프	성견		구조	진도믹스	실외	o (노인)	독거노인 사망
11	레로	성견	o	구조	믹스	실외		떠들개, 울무 상해
	레리	성견	o	구조	진도믹스	실외	o (노인)	떠들개, 울무 상해, 방치견
	1	성견	o	중성화 지원	진도믹스	실외	o (노인)	떠들개, 방치견
	2	성견	o	중성화 지원	진도믹스	실외	o (노인)	떠들개, 방치견
	셋뽕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떠들개의 새끼
	노을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떠들개의 새끼
	파도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떠들개의 새끼
	버들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떠들개의 새끼
	여울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떠들개의 새끼
12	라비	성견	o	구조	품종	실외		떠들개, 누더기견
13	숙자	성견		검진 지원	믹스	실외	o(아주머니)	떠들개, 노견, 준보호자, 불안감
14	또자	강아지		구조	진도믹스	실외		떠들개, 로드킬 위험
총 14 개 현 장	총 38 마리	강아지 14 (36.8%)	포획 7	안전구조: 17 중성화: 11 중성화+치료: 4 치료: 4 입양지원: 2	믹스 33마리 (86.8%)  *이중 진도믹스 20마리 (52.6%)	전원 실외 (100%)	보호자 있음 26마리 (68.4%)	떠들개이거나 연관 19마리(50%)

# 1 | 시골개 실태 - 마을 동물복지 사업

동물권행동  
카라

- 사건별로는 14개 현장:  
보호자 등 당사자 존재 12개 현장/ 당사자 없음 2개 현장
- 당사자 존재한 12개 현장: 보호자 11인/ 준보호자 1인
- 보호자 등 당사자 연령대: 70~80대 4건/ 50~60대 8건
- 보호자 등 당사자 성별: 남 6건/ 여 6건
- 지원 동물 마리수: 70~80대 여자 5마리(13.2%)  
70~80대 남자 10마리(26.3%)  
50~60대 여자 14마리(36.8%)  
50~60대 남자 7마리(18.4%)  
당사자 없음 2마리(5.3%)



# 1 | 시골개 실태 - 마을 동물복지 사업

동물권행동  
카라

- 당사자 유무: 있음 36마리(94.7%)/ 없음 2마리(5.3%)
- 보호자 유무: 있음 26마리(68.4%)/ 없음 12마리(31.6%)
- 실외 사육: 38마리(100%)
- 동물 연령: 3개월령 미만 14마리(36.8%)/ 성견 24마리(63.2%)
- 품종: 믹스 34마리(89.5%)/ 품종 4마리(10.5%)  
\*진도믹스 20마리(52.6%)/진도 외 믹스 14마리(36.8%)/ 품종 4마리(10.5%)
- 떠돌이개 연관: 떠돌이개 or 떠돌이개로 인한 새끼 19마리(50%)/ 연관 없음(50%)



# 1 | 시골개 실태 - 마을 동물복지 사업



(요약)

- 보호자 등 당사자 연령대가 최소 50~60대이며 70~80대도 많은 편.
- 지원 동물 가운데 실내 사육은 전무.
- 믹스견이 대부분이며 특히 진도믹스가 지원 동물의 절반을 넘음.
  
- 지원 동물의 36마리(94.7%)가 보호자 등 당사자 존재. 한편 지원 동물 가운데 보호자가 실제 있는 동물은 26마리(68.4%).  
--> 당사자는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방치견 현장과 밀접한 연관.
- 지원 동물의 절반이 떠돌이 개들과 연관.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 정부 조사 결과와 카라의 마을 동물복지 사업 대조

<정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2022)>

- 반려견 양육자의 92.4%가 실내 사육.  
(도시 지역 95.3%, 농어촌 지역 70.5%)
- 반려견 74.1%가 중성화 수술 했음.  
(도시 지역 73.5%, 농어촌 지역 63.4%)

<카라의 마을 동물복지 사업(파주)>

- 실외 사육 100%.
- 기 중성화 1마리(2.6%).  
방치 사육중이면서도 새끼를 또 보겠다는 보호자의 반대로 2마리(5.2%)는 치료 지원차 내원했으면서도 중성화 수술 끝내 진행 못함.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 정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시골개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 조사 대상은 만 20세~64세 성인 남녀로 제한.
- 농촌 지역 실상 및 고 연령층, 특히 노인의 높은 반려동물 양육 현실 반영 미비.
- 농촌 지역 반려동물 의료 인프라 미비하며 동물병원 문턱 높음.
- 마당개 많고 동물등록제, 펫티켓 인지도, 중성화 보급률 낮음.
- 유기, 유실, 방치, 소위 '들개' 등 떠돌이 개들 많음.
- 애니멀 호딩 or 애니멀 호딩 위험군 있음.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동물권행동  
카라

(시골개 사육 풍경)

- 반려가구 비율은 농촌 지역에서도 높게 유지.
- 보호자 연령층 매우 높은 편.
- 독거 노인 가구도 적지 않음. \*입원이나 사망시 반려동물 방치.
- 마당개가 집집마다 있고 많게는 15~20마리까지 개 키우는 가구 관찰됨.
- 뜰장, 철장, 축사 한켠, 울타리 바닥 등 다양한 사육환경.  
\*실외 사육 많으나 소형견 품종은 실내 사육도 관찰.
- \*뜰장 곳곳에 잔존.
- 반려 목적, 집 지킴이 뿐만 아니라 밭 지킴이 목적으로 거주공간 밖에서도 사육, 개장수와 거래도 잔존.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동물권행동  
카라

(시골개 사육 풍경)

- 묶어놓은 목줄 길이 1m~ 와이어 줄까지 다양,  
묶어놓는 목줄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음.
- 울타리 없이 마당 안팎 넘나드는 사육도 관찰.
- 급여는 사료, 잔반만, 사료+잔반, 음식점 잔반 등 다양.
- 개집은 기성품, 있지만 무용지물, 없는 경우, 간혹 목재 제작물 관찰.
- 비가림은 개집으로 대체하거나 비가림막 아예 없는 경우도 관찰.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시골개 사육 풍경)

- 보호자와 줄산책하는 개도 더러 있지만, 대개 줄 없이 산책, 심지어 개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 자주 보임.

\*산책 안시키는 경우도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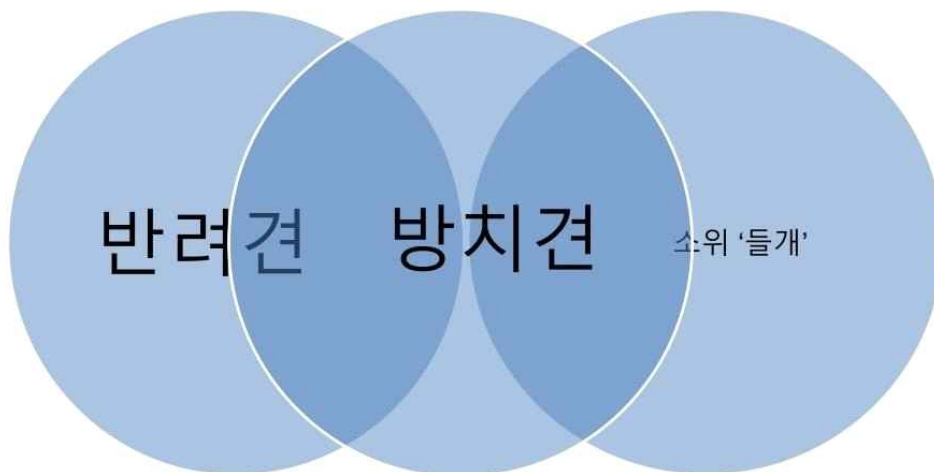
- 반려가구 중성화 보급률 낮고, 번식 조장 등 중성화 반대도 소수 존재.

\*여러 마리 사육하는 가구의 경우 수컷 일부만 중성화 하거나, 중성화 없이 분리 구획으로 버티기도 함.

- 의무제인 동물등록 거의 안함.

- 읍내에 동물병원 없고, 동물병원 이용도 드뭄. 의료적케어 미비.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 (방치의 악순환)

- 시골개가 사는 환경은 동물복지 개념 적용 더디고 낙후됨.
- 집 나간 개, 버려진 개, 처음부터 보호자 없이 떠돌던 개, 혼자 산책중인 개, 마당개들 사이에서 새끼들이 태어나고 방치되는 악순환.
- 마당개로 키우는 반려견에게 떠돌이 개가 접근.
- 중성화 안된 반려견이 밖에서 목줄 없이 다니다 다른 개들과 접촉.
- 떠돌이 개와 보호자가 있어도 방치되는 개들이 뒤섞여 마을 방치견 문제 심화.
- 일부 강아지들만 구조되어 목숨만 부지, 발견 뒤 시보호소로 들어가 안락사 되는 강아지들은 훨씬 더 많음.
- 개들은 외부에서 로드킬, 울무, 쥐약 등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이 산과 들, 인가를 떠도는 개들은 소위 들개로 낙인 찍히기도 함.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 <파주 시보호소>

- 파주 시보호소는 직영이 아니며 위탁 시보호소 또한 관내에 없어 양주 동구협으로 유기견들을 보내고 있음.
- 파주에서는 2023년 252건(개 241마리)의 유기동물 발생: 안락사 127마리(52.7%).
- \*2023년 4월 현재 252건(개 241(95.6%)/고양이 11(4.4%))

<파주 시보호소 입소견 처리 현황(2023.4 현재)>

안락사	자연사	입양	기증	반환	미정(공고중)	
127마리 (52.7%)	15마리 (6.2%)	32마리 (13.3%)	2마리 (0.8%)	24마리 (10%)	41마리 (17%)	개: 총 241마리



## 2 | 소외된 시골개 방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파주 시보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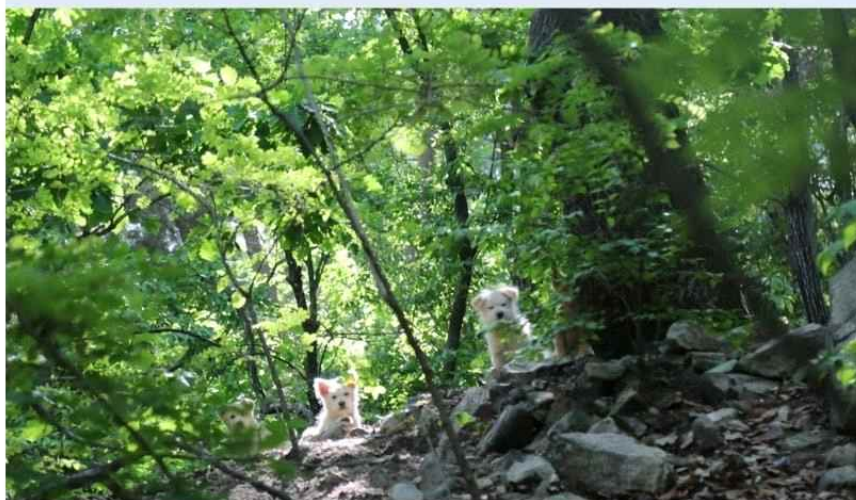
- 올해 안락사 되고 있는 동물 마리수 치솟고 있음.
- 안락사 사망건 89%가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이거나 나이가 많아도 1세 전후인 개들로 어린 개체들이 안락사 되고 있음.

<안락사 127마리 연령대>

2023년생 (태어난 지 3개월 미만)	88마리(69.3%)
2022년생 (3개월 이상~1세 전후)	25마리(19.7%)
2021년생 (1세 이상)	5마리(3.9%)
기타	9마리(7.1%)
	총 127마리

## 3 |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소위 '들개'

- 방치견(떠돌이개) '야생화'된 개(소위 '들개')





### 3 |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소위 '들개'

- 소위 '들개'는 유기견에 준하여 행정 처리.
  - 시보호소에서 형식적 공고기간을 갖고 10일만에 안락사 수순.
  - 소위 '들개'는 포획 어려움.
  - 소위 '들개' 구조 후 사회화 어려움. 오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
- \*개들은 생후 16주까지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



### 3 |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소위 '들개'

- 소위 '가축' (Domestic Animals) - 동물보호법 관장(농림축산식품부)
- 야생동물 (Wild Animals) - 야생생물보호법 관장(환경부)

법률명	구분	정의
동물보호법	유기·유실동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 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총칭
	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총칭
	야생화된 동물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 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야생화'된 유기견의 정의 - 정해진 소유자(보호자)없이 살며 사람에게 대한 친화력을 잃고(사람을 두려워하며), 산에 서식하는 등 일부 야생성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사람이 건네주는 음식이나 인간 생활환경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등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개

### 3 |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소위 '들개'-서울시



#### 주민 돌보던 유기견 '상암이', 포획과정서 마취총 맞고 사망...누가 책임?

수의사 동행없는 마취총 난사... "유기동물 생명 위협"  
(이종+뉴스) 김연수 기자 · 2018-10-03 07:00 송고 · 2018-10-03 12:47 최종수정



주민들이 돌보았던 상암이는 포획할 때 마취총에 사망했다(사진: SNS 캡처@ News1)

### 3 |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소위 '들개'

- 2021 카라가 진행한 '야생화'된 유기견 시범 사업의 내용 (서울시)
- 야생화된 유기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자체 민원 데이터 분석 및 사업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 진행
- 서울 도시정비구역 및 이와 연결된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위 '들개' 포획 진행
- 포획된 소위 '들개'에 건강검진 및 중성화수술을 진행하고, 사회화 교육과 돌봄을 통해 입양 추진
- 전반의 활동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활동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방향 제시



### 3 |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소위 ‘들개’



- 2021 카라의 ‘야생화’된 유기견 시범 사업시 구조와 사회화

개체(구조시 월령)	구조 당시 사회화 평가	훈련 또는 돌봄 후 사회화 평가(훈련돌봄기간)	사회화 방법
해벌(4개월)	1~2	2 (5개월)	훈련소
달비(4개월)	1~2	2 (5개월)	훈련소
성소(24개월)	1	1 (6개월)	더봄 돌봄 및 사회화
성소 자견(0개월)	-	6개월령 해외입양	더봄 사회화 및 입양완료
cf. 로다(24개월)	1 (얼음상태)	2	더봄 돌봄 및 사회화

※ 범례: 입양이 가능하려면 최소 3단계 이상이 되어야 함

- 1단계: 두려움이 커서 공격성을 보임(방어적 공격성)
- 2단계: 겁이 많아 눈치를 보며 천천히 움직임(소극적인개)
- 3단계: 차분하고 편안하게 다가옴
- 4단계: 꼬리를 흔들며 적극적으로 다가옴

### 3 |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소위 ‘들개’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야생화’된 유기견 보호 관리 방안제안

1. 방치견 방지 / 중성화 동물등록 유기 처벌 / 반려동물 평생돌봄 문화 향상 등 근본적 대책 유지
2. 현존하는 이미 ‘야생화’ 된 유기견에 대한 보호 관리 대책 변경 제안
  - 2개월령 어린 개체의 적극적인 포획과 입양활동 지원
  - 4개월령 이상 개체에 대한 포획과 안락사 중지 → 포획 중성화-제자리방사





## 4 | 방치견 예방과 상생복지를 위한 대안

동물권행동  
카라

시골개 실태를 반영한 중성화 정책 강화.

- 2022년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정책 도입.
- 파주에서도 2022년 60마리, 2023년 150마리 목표 추진중.
- 읍면 단위 적극 홍보 및 안전한 시술과 케어로 신뢰성 확보.



## 4 | 방치견 예방과 상생복지를 위한 대안

동물권행동  
카라

보호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방치견 예방.

- 어르신 대상 반려동물 돌봄 문화 교육.
- 취약계층 지원+동물등록/중성화 지원.
- **방치 상황**이라면 **적극적 계도** 즉시 필요.  
--> 문제 심화 방지.



## 4 | 방치견 예방과 상생복지를 위한 대안

동물권행동  
카라

안락사 중단 위한 노력과 현존하는 소위 '들개' 대상  
중성화 시범사업 실시.

- 시보호소 안락사 심각한 상황으로 입소 동물  
안락사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 소위 '들개' 포획-살처분 중단 및 중성화  
시범사업 실시.
- 포획시 비인도적 핸들링 방지.

\*마을에 이미 불법 엽구 피해 발생중.



## 4 | 방치견 예방과 상생복지를 위한 대안

동물권행동  
카라

시골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진돗개를 진정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입양 교육 강화 및 무분별한 반려화 제어.
- 취약계층 개념 확장으로 마을서 방치견  
예방과 상생복지 실현.



방치건 예방과 주민 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

## 패널토론

---



방치건 예방과 주민 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

# 토론 1

---



# 토 론 1

## 방치견의 안락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김혜미 명예동물보호관

23년 현재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안락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23년도에만 (4월 28일 기준) 292마리의 유기견이 파주시 위탁 보호소에 입소하였고 그중 149마리(51%)가 안락사되었다. 아직 공고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호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안락사 비율을 더 높아질 것이다.

신고되어 들어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진도 믹스이다. 도시개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함께있는 파주시의 특성상 진도믹스의 방치견과 마당견등이 새끼를 낳고 그중 일부는 소위 들개로 살아가고 일부는 포획되어 열흘간의 공고기간이 끝나후 안락사 되고 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연간 800~900마리의 유기견이 신고되고 그중 400~500마리의 개가 안락사가 된다.

유기견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새끼강아지가 태어나는 원인을 줄여야한다.

올해 신고된 292마리의 포획지역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운정, 교하, 금촌등의 도시에서 발견된 경우가 69마리(23%)정도이다. 가장 많은 아이들이 신고된 지역은 광탄면(57마리), 법원리(41마리), 파주읍(30마리)순이다.<sup>1)</sup> 파주시의 인구가 운정, 교하, 금촌 지역에 몰려있는걸 감안한다면 많은 유기견이 도시외각의 방치견과 마당견들의 번식으로 태어난 새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도시내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아파트와 빌라등의 개발로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방치견의 새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

1) 포인핸드 유기동물통계자료



하고 있기에 유기견의 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방치견과 마당견의 번식을 줄일수 있는 중성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조된 유기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락사뿐인가.

22년 파주시의 안락사 비율은 21%였다. 22년 구조된 704마리의 개들중 273마리가 입양을 가고 157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되었다. 그중 대부분을 파주시 유기견을 구조하는 ‘행동하는동물사랑’에서 구조를 하였다. 파주시에서 구조되는 많은 유기견을 민간 동물단체의 도움으로 안락사에서 구해 입양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행동사는 작년 12월부터 재정난으로 인해 구조활동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23년에는 50%가 넘는 비율로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아니면 안락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

파주시와 비슷한 두수를 구조하는 경기도의 다른지역을 살펴보자. 현재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안락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이다. 하지만 22년도에 비슷한 규모의 유기견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부천시(846마리), 수원시(834마리)는 안락사 비율이 2%에 불과하다. 또한 하남시(494마리) 같은 경우 매해 안락사 비율이 0%이다.

이곳들은 그 지역을 전담하고 구조하는 민간 보호단체가 있는곳이 아니다.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보호소의 적극적인 귀가조치와 입양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지역적 특성이 달라 파주시처럼 진도믹스의 대형견이 대부분의 구조되는 상황과는 다를수 있다.

하남시 같은 경우 파주시와 비슷하게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인해 많은 방치견과 새끼들이 구조되고 있지만 입양률이 70%가까이 이뤄지고 있다. 유기견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하남시 동물보호 센터장님과 하남시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파주시도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위탁 보호

소에 일정기간 후 안락사로 유기견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호보호  
설립의 빠른 추진 ◆다른 지역의 유기견 보호센터의 벤치마킹 ◆파주시 유기견을 구조  
하는 민간단체 지원 ◆농촌지역의 동물등록제 지원 ◆실외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필요  
성 홍보 ◆방치견과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을 위한 예산편성 ◆방치견에 의한 물림  
사고등의 치료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 토 론 2

김구성 이장 | 법원읍 금곡1리

파주 법원읍 금곡1리 이장 김구성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카라 더봄센터가 있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점에 있어서 카라 대표님이나 직원 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되었습니다. 소통을 지속하며 점차 이해가 되고 있지만 현재도 그 이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저의 반려견만 생각했지 외부의 개나 고양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마을에서 마주치는 동물들도 눈여겨 보고,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준 카라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카라 더봄센터에서 마을 동물복지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저 말고도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듯 합니다.

우선 카라에서 마을 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와 관련 활동 덕분에 우리 주민분들이 고양이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저 역시 마을 고양이 4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사료를 꼬박꼬박 급여해 왔지만, 중성화가 꼭 필요하며 이것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카라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을 찬찬히 알려준 덕택입니다.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는 많은 이장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떠돌아 다니는 개들이 있는데 카라에서 모두 구조 해주면 안되냐고 묻으십니다. 일부 카라의 개입

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단체인 카라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눈 앞의 문제가 당장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카라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카라의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듯한데 마을마다 동물에 대한 도움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떠돌아 다니는 개들에 대한 걱정이 큼니다. 서너 마리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에 주민분들이 겁을 먹기도 하니까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마을이 많고 그만큼 떠돌이 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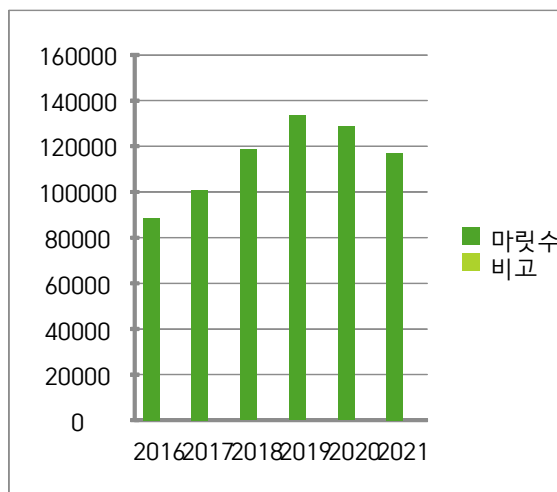
파주시에서 앞으로 시민안전도, 생태보존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물과 함께 잘 살아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세세히 살피고 실행하는 일도 요청 드립니다.

# 토 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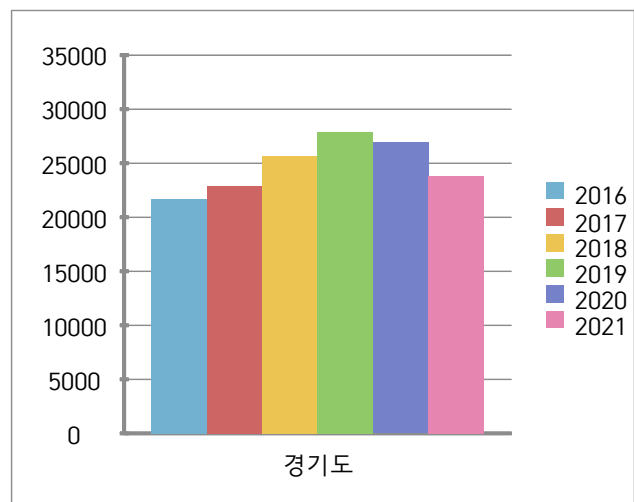
## 유기견 발생 예방을 위한 제언

임영기 대표 | 동물구조119

<최근 5년간 유기동물 변동 추이>



<전국 유기동물 현황>



<경기도 유기동물 현황>

△ 우리나라 유기동물 현황 분석 - APMS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 최근 10간 다시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다.
- 10만 마리를 2017년 통과했다. 12만 마리 전후로 오르락 내리락 함

○ 최근5년간 눈여겨 볼만한 광역시도별 유기동물 추이

- 경기도가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고, 5년간 변동 추이에 따라 전체 유기견수 변동 보임.
- 가장 큰 특징으로는 경기도 유기동물 숫자가 낮아지면 전체 유기동물 숫자도 낮아 지고,

경기도가 높으면 전체 숫자도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유기동물 현황을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 놀라운 변화. 우연인지 모르지만, 서울시 동물복지과 신설이후 꾸준히 하향추세. 고무적 현상.

- 결론 :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집중 비교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상반된 결론이 왜 나왔을까?

-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시민들의 의식 향상이 주요 원인. 동물단체로 서울에 집중이 되어있고 그 시민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역할로 보여진다.

- 하지만 최고 다른점이 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내 중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마당개들과 개농장, 번식장이 즐비하다. 서울은 마당개들이 거의 없고 번식장, 개농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차이는 결국, 서울과 경기도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유기동물 현황에서 극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유기동물 발생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 고무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당개 중성화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2022년부터 전국적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유기동물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마당개 중성화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 지자체별로는 정비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서의 유기견 예방활동과 취약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파주시에 관내 정비단계에 있는 곳이 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곳에 미리 유기견 예방 캠페인과 선제적 중성화 도입, 동물등록제까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마당개 중성화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또한 접근성에 대해 행정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협업해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즉, 연세드신 어르신이 당신의 마당개를 파주시에서 지정한 병원까지 이동하고 수술후 또 옮기는 불편함을 해소 할 필요.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신속 이동차량을 제공하거나 시민단체와 협업. 아마 5년 만 지속한다면 유기견 숫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본다.

○ 떠돌이개 (야생화 된 유기견) TNR 가능하다.

- 5년 전 동물구조 전문단체를 설립하고 무리지어 떠도는 개들, 목줄괴사견들을 구조해왔다.

그런 장소에는 몇 마리가 항상 같이 머물고 있다. 대상 구조건을 구조한 후 함께 떠돌던 개들을 눈감을 수 없어서 중성화 후 방사를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한 단체가 그 많은 개들을 입양 보낼 수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눈 감을 수도 없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동물구조119는 시골개, 마당개 중성화, 떠돌이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몇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 남양주 수동, 북한산 고양시 일대, 파주, 양주 등 일대에서 7~8 마리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는 유기견들에 대해 중성화 후 개체군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대상의 무리군들은 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사료급여, 개체별 건강체크 및 생활하는데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 유기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파주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의 유기견 정책은 소위 'Clean' 정책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모두 잡아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10일간 공고 후 안락사 하는 후진 정책이다.

주인 찾아주는 10일간의 공고 기간이 의미 없을 만큼, 동네 떠돌이개 혹은 야생화된 유기견 혹은 그 자견들이 50%가 넘는다. 안락사로 이어지는 그 들에겐 잔혹사 일 뿐이다.



민원처리용 유기견 정책 반대한다.

민원 후 보호소에서 안락사 되는 것이 절대로 유기견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

동물구조119는 떠돌이개 TNR을 제안한다.

그들도 태어난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

민원처리용으로 포획되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

떠돌이 개들도 TNR 가능하며 동물구조119는 이미 여러 곳에서 실험을 해봤다.

접종, 중성화 후 제자리에 방사 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의 유기견 정책 이젠 바뀌어야 한다. 파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떠돌이TNR'을 실시해서

주도적인 유기견 예방정책과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만들어 노킬(No Kill)운동을 전개해보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참조 : 유기견 TNR 표시 방법

동물구조119는 중성화 수술후 염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파란색 염색이 되어있다면 암컷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외국 사례

'Soidog(쏘이독)' 이라는 단체는 2014년 태국에서 개고기 거래가 금지된 이후 단체는 가능한 한 많은 개를 중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성화는 떠돌이 개를 통제하는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쏘이독은 매년 180,000마리 이상의 떠돌이 개와 고양이를 중성화하여 거리에 사는 개체들을 줄이고 있다.

심지어 수술 차량을 운영 중이며 직접 현장으로 이동 수술한다.

# 토 론 4

김성호 교수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파주시 법원읍 떠돌이 개 지원사업의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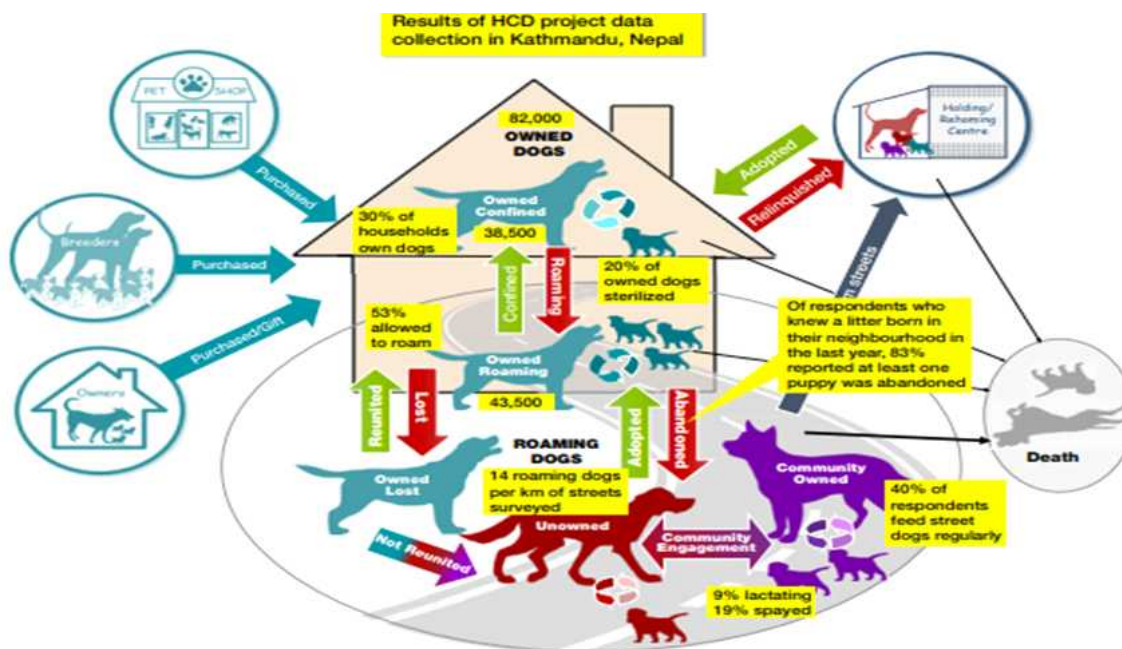
- 반려견 양육 가구 수는 지역 특성이나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도심지역과 비교하여 농촌 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의 비중이 크고, 소위 떠돌이 개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됨.
- 동물권행동 카라가 파주시 법원읍 지역에서 지난 1년간 수행한 시골개 돌봄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37%가 3개월령 미만, 50%가 떠돌이개 (강아지)였으며 대부분 (진도) 믹스견이었음. 이 같은 결과는 기존 반려동물 통계 및 유기·유실 동물통계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음.
  - 지역별 분석에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유기·유실견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믹스견일수록 1세 미만의 월령의 개가 많음 (개식용 산업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본 지역의 동물등록과 중성화율은 기존 조사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 농촌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실외에서 양육하는 개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관심과 접근 필요.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무상으로) 받은 경우가 절반에 해당함
- 이 같은 결과는 동물등록과 소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함.

## 2. 방치·유기견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 세계적으로 2억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떠돌이 개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를 종합

해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one size does not fit all”, 즉 한 가지 전략이나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즉 다양한 원인에 맞게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개들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① 주인이 있으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 (Free-roaming dogs with an owner)
  - ② 주인 없이 (유기되어) 돌아다니는 개 (Free-roaming dogs without an owner: dogs that are abandoned by owners)
  - ③ 주인은 없으나 주민들이 돌봐주는 동네 개 (Community dogs)
  - ④ 돌봐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유기견 혹은 소위 ‘들개’ (Feral dogs)



출처: Humane Dog Population Management Guidance (2019), International Companion Animal Management Coalition

- 위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경로는 다양함.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경로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3. 떠돌이 개 TNR 시범사업

- 본 토론회 발제에서 동물권행동 카라가 제시한 “떠돌이 개 TNR 시범사업”에 적극

동의함.

- 세계적으로 떠돌이 개에게 TNR을 시행하거나 새로이 도입하는 국가(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 EU 국가들, 인도네시아, 홍콩, 네팔, 인도, 미국, 캐나다 등 국가의 여러 도시.
- 네델란드- 유기견 TNR 제도를 채택한 이후 세계최초 유기견 없는 나라 선언.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강화(2016년 반려동물 중성화 의무조항 추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 경찰팀 신설, 반려동물 세금, 펫샵 분양 세금부과, 정부주도 CNVR program 등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됨.
- 인도 브라한뭇바이- 2022년 시에서 떠돌이 개를 돌보는 장소를 지정하여 주민들이 돌보도록 하는 정책 시행.
- 국내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떠돌이 개 중성화와 공동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 4. 사회복지적 함의

- (1)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유대 (Human-Animal Bond, HAB)는 사람, 특히 취약 계층 반려인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연구됨. 그러나 HAB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건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 혜택이 극대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실외에서 양육하는 반려견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는 단지 그 개들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반려인 사이의 건강한 유대도 형성되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이웃갈등이나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2) 최근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성숙하고, 전원주택이나 신도시 건설 등으로 농촌 지역에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새로운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 소위 “전통적 방식”으로 실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개를 양육하거나 풀어놓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훈계 방식의 접근이 아닌, 그분들을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돌봄 관련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접근방식 필요.
- (3)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정 필요: 소위 경제 수준, 나이, 장애 유무 등으로 획일적으로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 HAB에 근거하여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한 취약계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음.
  - 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자(가구), 노인, 장애인들이 해당됨.
  - ②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된 특별한 위기나 욕구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반려동물 돌봄 정보(지식, 인식)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리적, 물리적 접근권이 약한 계층, 사회화 훈련 부족 등으로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반려인 등.
  - ③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건강한 HAB를 지속하는데 특수한(응급한) 위기상황을 겪게 되는 반려인들. 재해나 재난 대피 혹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사람, 요양원 입소나 장기입원을 앞둔 노인,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생업과 반려동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현재 사는 곳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등.
  - ④ 사람만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위기가 처하는 상황이 되면, 즉 반려인과 반려동물 간에 상호 유익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도 취약계층으로 봐야 함. 예를 들면, 1m 목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시골 개들, 과도한 숫자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불결하고 안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경우, 잔반을 먹고 사는 반려동물, 성대 수술을 비롯한 과도한 방법으로 양육되는 개들 모두 위기가 되는 상황임.
  
- 이상 소개한 내용을 종합하여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하면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건강한 HAB를 유지하는데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별위기 상황을 맞이한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중 가장 취약한 계층은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음.

## 5. 결론

- 획일적인 동물보호 정책은 한계가 있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 도

입 필요.

- 지역의 반려견 양육실태와 떠돌이 개 실태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등록, 예방접종, 그리고 Dog TNR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주민, 자치구 담당자 그리고 비반려인을 포함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함.
- 반려동물과 건강한 유대(HAB)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적 접근 필요. 인식개선과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심각한 사례는 '사회복지 사례관리적 접근' 필요.
- 정책적 합의(중앙정부 차원)
  - 유명무실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고 정기적 갱신과 차등 적용 필요 (단속 및 처벌 강화),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지향
  - 반려동물 등록비 현실화 및 사용 용도 명시
  - 반려인 책임 강화 필수. 반려인 교육 의무화
  - 동물보호법 강화 및 실효적 처벌
  -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개식용 종식





# 토 론 5

## 시골 개들의 현실

유화옥 원장 |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병원

카라동물병원에 내원한 시골개의 건강 상태와 질환을 바탕으로 시골개들의 현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카라동물병원에 파주 지역 마을 동물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내원한 개는 총 38마리인데, 보호자가 있는 경우 26마리와 보호자 없이 여러 이유로 진료하게 된 12마리입니다. 38마리 가운데 17마리가 카라 구조되었습니다.

우선 보호자 없는 상태로 내원 한 경우입니다

내원한 개들 가운데 14마리의 강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견의 나이는 약 1세령부터 8세 이상으로 연령은 다양하였습니다.

모두 기본 건강 검진을 실행했습니다. 건강 검진의 내용은 흉부, 복부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적혈구 내 주혈기생충 검사 ( 4Dx, idexx ), 예방 접종 후 항체 형성 정도를 알아보는 항체가 검사 그리고 파보 장염, 코로나 장염, 지알디아, 홍역 등 전염성 질환을 살피는 키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염성 질환을 검사하는 키트 검사에서는 파보 장염, 코로나 장염, 홍역은 모두 음성이 확인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강아지들에서는 당연히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성견 중 5마리에서는 심장사상충 양성이 확인되어 전처치 약물 투여 후 심장사상충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장사상충에 이환된 성견의 혈액 검사에서는 빈혈과 중증도의 간수치 상승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항체가 검사에서 항체가는 대부분 낮게 확인되어 예방접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피부에서는 진드기도 확인 되었습니다.

한편 2마리는 덩장 외과적인 개입이 필요한 케이스로, 덧이나 올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에 의해 앞다리에 외측성으로 심한 외과적 창상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앞다리에 창상이 확인되어 활동가들이 구조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이 개들이 너무나 조심스러워 구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구조되었을 때는 이미 창상이 있던 앞다리는 절단되어 수복 불가능한 상태이었습니다.

그리고 1마리에서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오래된 골반 골절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자가 있는 시골개 또는 보호자는 있으나 거의 방치되어 키워지고 있는 방치견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건강 검진을 실행한 케이스 입니다. 보호자가 완강하게 중성화를 반대한 2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성화 수술도 완료 하였습니다.

카라에서 구조한 개들과 동일한 내용의 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건강 검진의 결과를 보면 개들의 일반적, 내과적 건강상태와 함께 예방 접종, 내외부 기생충의 예방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유추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시한 검사 중 항체가 검사에서는 낮은 항체가가 나와, 대부분 예방접종이 적절하게 접종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체가 검사에서 검사하고 있는 전염성 질환의 항체는 개 전염성 간염, 파보 장염, 홍역의 항체입니다. 종합 백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5종 백신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개에서 치사율과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기본 백신인데도 제대로 접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맞아야 할 예방 접종에는 종합 백신 이외에도 법정 전염병인 광견병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개의 경우인데 광견병 접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심장사상충 양성인 개체가 4마리에서 확인되었고, 아나플라스마 양성인 개체가 2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장사상충 양성 개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급여가 전혀 없었고, 아나플라스마 양성인 개체는 풀이 많은 외부 환경에 외부기생충 예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개체에서 2마리에서 종양이, 심한 서혜부 탈장이 1마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보호자가 있는 시골개라도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과 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한 수의 예방의료적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골개가 놓여진 환경의 단면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방의료적인 개입 이외에도 종양이나 심장사상충 감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한 치료의 의료적 개입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의 방임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하고 보호자가 동물과 함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임신과 출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성화 수술이나, 개의 건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토 론 6

## 파주시 동물관리과

파주시는 매년 약 700두 가량의 유실·유기동물 포획하고 있으며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매년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유실·유기동물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책임의식 결여 및 부주의와 반려견을 누구나 손 쉽게 소유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큰 몫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파주시는 유실·유기동물의 예방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유실·유기동물 예방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유기동물 예방사업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읍·면지역에서 실외사육견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예방사업단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반려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유도 할 계획이며

나아가 사육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하여는 목줄 등 사육물품을 지원하여

동물유기 방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주시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 시 입양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실·유기동물을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에 올라온 반려동물 입양 시 입양자에게 최대 15만원을 지원해주며, 올해 90두에 대해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반려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을 시행중입니다.

2023년 약 150두를 목표로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고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을 대상으로 자부담 10%를 제외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시행중이며, 2022년 60두에서 사업량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가구가 파주시 또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동물등록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파주시는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1,400두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복지사업으로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 돌봄취약가구에 대해 30가구를 선정하여 마리당 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저소득계층에 의료비와 동물등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가 갈등 해소하고자 올해는 1,000마리를 목표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동물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고취하고자 2023년 하반기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 할 계획이며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더불어

지정된 장소에서 길고양이에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적 관리와 민원감소를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사업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이상에서 열거한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상생을 통한 동물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메모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gray header and a white body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